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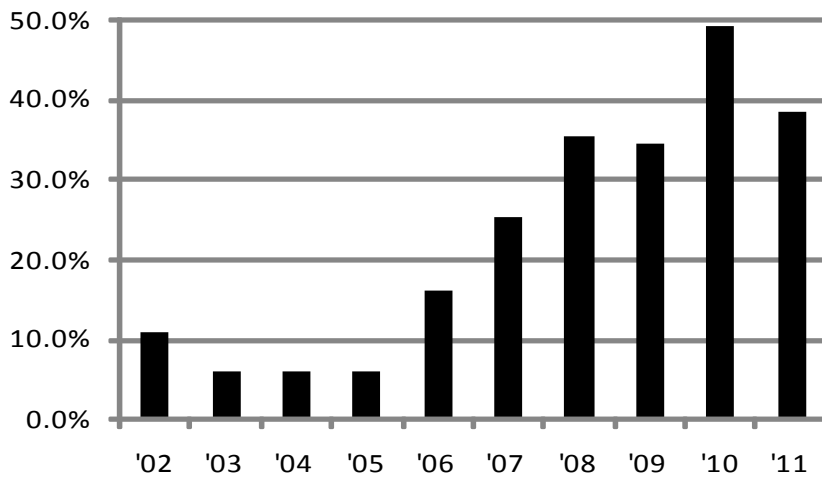
중국기업의 유럽기업 M&A 급증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유럽에 대한 진출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
- Dealogic 컨설턴트社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투자총액이 2003~2005년에 8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, 2008~2010년에는 439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 건수 역시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년대비 약 50%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6월 6일 현재 전년동기대비 40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.

〈그림 1〉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 건수 추이



주 : 2011년은 6월 6일 까지,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자료 : Dealogic

■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풍부한 자금, 정부의 지원, 중국기업의 유럽선호, 대외적으로는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유럽의 우호적 분위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됨.

- 2010년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규모는 3조 달러에 육박하고 2020년에는 그 규모가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해외진출자금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됨.
- Rhodium 컨설턴트社는 2011~2020년까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투자규모가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며, 진출대상 업종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제조업, 서비스업 등 전 분야를 포함할 것이라고 분석함.
- 2011년 3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및 판매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며, 이를 위해 해외진출시도 중국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힘.
- 2009년 3,000개 중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기업은 M&A 대상으로 미국(28%)보다는 유럽(33%)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유럽은 대체적으로 중국기업의 M&A가 고용창출 또는 유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나,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외자본의 자국투자에 대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대한 중국기업 진출이 용이한 것은 아님.

■ 전문가들은 중국기업의 유럽진출 전략으로 지역 경계감 완화, 틈새시장 개발, 빠른 규모 확대 지양 등을 제안함.

- 프랑스, 스페인,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국가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중국기업이 지역의 고용유지와 시장개발보다는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M&A를 시도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함.
 - 최근 프랑스 요거트 생산업체인 요플레社는 중국 Bright Food社의 더 큰 인수금액 제시에도 불구하고 미국 General Mills社의 인수제의를 받아들였는데, 그 주요 원인은 고용유지와 지역의 낙농업 발전이었음.
- 유럽의 틈새시장은 브랜드와 전문적 기술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이 추구하는 해외진출 목적과 부합된다고 분석함.
- 그리고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함.
 - 고용규모가 큰 기업은 인수 이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 유럽의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분석함.

(Wall Street Journal 등, 6/6)